

보도시점 (온라인, 지면) 2026. 5. 22.(금) 16:00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대책 점검

-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5.22.)
- 쪽방촌 주민, 독거노인, 옥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 현장점검 및 지원대책 논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올여름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월 22일(금)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기관: 중앙부처(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17개 시도

최근 때이른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5.16.)함에 따라, 지난 20일(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과 지원 대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점검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점검하고, 추진 중인 대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기관 간 소통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며, 무더위쉼터와 폭염 취약 분야 대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쪽방주민·독거노인 등 보호를 위해 노후 냉방기기 점검과 건강관리 지원 등을 강화하고, 소규모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에어컨 등 재정지원과 함께 현장에서 폭염 안전수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충분한 물과 휴식, 보냉장구 제공, 폭염 시 작업 중지 등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가 얼마나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쪽방주민, 독거노인, 옥외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진희	(044-205-6360)
		담당자	사무관	조호명	(044-205-6364)

